

칸트의 초월적 연역에서 주관적 통일과 지각판단의 문제

김재현
(서울대학교 철학과)

1. 들어가며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불리는 사유의 운동이 『순수이성 비판』(이하 『비판』)의 핵심을 이룬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칸트는 『비판』의 머리말에서 말하기를 “이제까지 사람들은 모든 우리의 인식은 대상들을 따라야 한다고 가정”¹⁾해왔으나 이제는 “한 번, 대상들이 우리의 인식을 따라야 한다고 가정”(BXVI)해보자고 제안한다.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에서 발상의 전환을 일으켰듯이 말이다. 이러한 초월철학적인 전회는 『비판』 전체를 관통하여 일관되게 유지되는 칸트의 핵심 사상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15에서 §27에 이르는 초월적 연역이 이러한 사상의 요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 초월적 연역에서 칸트는 인간의 자발적인 지성 활동을 통해서만 하나의 대상과

1) 『순수이성비판』, 임마누엘 칸트 지음, 백중현 옮김, 아카넷, 2007, p.182 이후의 『순수이성비판』에 대한 한글 직·간접 인용은 모두 위 문헌에 그 출처를 둔다. 인용은 인용 대목의 괄호 속에 A판과 B판의 면수로 표시한다. 독일어 원문을 병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hrsg. v. J. Timmermann, Hamburg 1998.에서 인용한다.

2) §15에서 §27에 이르는 조항들은 모두 B판에 등장한다. 다시 말해 A판에는 §15에서 §27에 이르는 조항이 없다. 이는 칸트가 B판을 출판하면서 초월적 연역 부분을 완전히 새로이 작성하였고 그러면서 기존에는 없던 조항 표시를 B판에 덧붙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대부분의 연구를 좇아 B판에 집중한다. 칸트 자신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반영한 것이 B판이기 때문이다.

그 대상에 대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 자연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파한다. 다시 말해 머리말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대상들이 우리의 인식을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초월적 연역과 관련된 많은 논점 가운데서도 지각판단의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지각판단은 『비판』의 초월적 연역이 아니라 『형이상학 서설』(이하 『서설』)에 등장하는 개념이다. “한날 나의 마음상태에서의 지각들의 연결”³⁾인 지각판단은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 경험판단과 구분되는 주관적으로만 타당한 판단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각판단의 개념은 『비판』의 초월적 연역과 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비판』에서 칸트는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판단은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각판단의 개념은 『비판』의 초월적 연역 내에서 수용 가능한 개념인가. 만약 지각판단의 개념이 수용될 수 없다면 칸트는 『비판』에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판단은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이것이 본고가 천착하고자 하는 핵심 질문이다.

이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우선 2장에서, 판단 개념 그리고 지각판단 개념을 중심으로, 초월적 연역과 『서설』의 논의를 개관하도록 한다. 지각판단의 개념은 지각들의 논리적 연결로 규정된다. 본고에서는 이 규정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을 3장과 4장에서 차례대로 검토한다. 첫 번째로 범주작용과 구분되는 논리적 연결의 판단작용 개념이 『비판』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이러한 판단기능에 의해 서로 연결됨으로써 ‘설탕이 달다.(Der Zucker ist süß.)’(IV299)와 같은 지각판단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지각 개념이 『비판』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본고는 첫 번째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을 두 번째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을 취한다.

3) 『형이상학 서설』, 임마누엘 칸트 지음, 백중현 옮김, 아카넷, 2012, p.193 이후의 『형이상학 서설』에 대한 한글 직·간접 인용은 모두 위 문헌에 그 출처를 둔다. 인용은 인용 대목의 괄호 속에 학술원판 칸트 전집 제4권의 면수로 표시한다. 독일어 원문을 병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Immanuel Kant, *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die als Wissenschaft wird auftreten können*, hrsg. v. K. Vorländer, Hamburg 1951. 에서 인용한다.

따라서 지각판단의 개념은 『비판』 내에 수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비판』에서 칸트는 정말로 보편타당한 판단만이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지각판단 개념을 검토하면서 발견한 연합 법칙과 주관적 통일의 개념을 통해 『비판』 내에서 주관적 판단이 가능함을 해명할 수 있다. 이를 5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탐구 과정을 통해서 주관적 통일과 객관적 통일이 어떻게 구분되는 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주안점은 물론 『비판』에서 주관적 통일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놓여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고의 검토는 주관적 통일과 구분되는 객관적 통일의 성격을 함께 밝혀줄 것이다.

2. 예비적 논의

2.1. 『비판』 초월적 연역에서의 판단 개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비판』과 『서설』에서 각각 판단과 지각판단의 개념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먼저 『비판』의 초월적 연역 부분에서 판단 개념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칸트는 §19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판단이란 다름 아니라 주어지는 인식들을 통각의 객관적 통일로 가져가는 방식임을 발견한다.”(B141) 즉 잡다한 표상들은 판단의 논리적 기능에 의해 통각의 객관적 통일 작용에 종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때 판단작용에 의해 표상들이 이루게 되는 객관적 통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개념을 해명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판단 개념에 한 걸음 접근하게 될 것이다.

칸트는 통일 활동이란 “서로 다른 표상들을 하나의 공통적인 표상 아래서 정돈하는”(A68=B93)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렇다면 다시 이 통일 활동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칸트의 서술을 찬찬

히 살펴보면 이러한 ‘객관적’이라는 표현에 크게 두 가지 의미규정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자. 칸트는 말하기를 인간의 지성 인식은 “직관적이 아니라 논변적”(A68=B93)이라고 한다. 이는 인간의 지성은 어디로부터 직관이 주어졌을 때 이를 재료로 하여 논변적인 사고를 개진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직관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지성에게 직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성뿐이다. 그런데 감성에 의해 제공되는 직관은 잡다함을 그 기본성격으로 갖는다. 다시 말해서 감성으로부터 주어지는 직관에는 잡다한 개별 표상들만이 있을 뿐 하나의 대상 표상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사태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사고의 자발성은, 잡다로부터 인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잡다가 먼저 일정한 방식으로 통관되고 수득되어 결합되기를 요구한다. 이 활동을 나는 종합이라고 일컫는다.”(A77=B102)

이러한 맥락에서 칸트는 “객관이란 주어지는 직관의 잡다가 그 개념 안에 통합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B137)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대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직관의 잡다가 하나의 객관 개념 안에서 종합·통일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통각이다. 통각이란 “모든 의식에서 동일자로 있는, 다른 어떤 표상으로부터도 이끌어낼 수 없는 자기의식”(B132)이다. 또한 통각은 여러 표상들에 수반하는, “그 자체로는 산만하며, 주관의 동일성과의 관계맺음이 없”(B133)는 경험적 의식과는 차별화되는 순수한 자기의식이다.⁴⁾ 바로 이 통각의 통일작용에 종속함으로써만 직관의 잡다가 하나

4) 개념어들의 사용과 관련하여 주의할 바가 있다. 첫째로 칸트는 이러한 통각을 순수 통각, 근원적 통각이라고 부름으로써 경험적 통각과 구분하기도 하지만 (B132)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통각’이라고 적고 이로써 순수 통각을 가리키고 있다. 두 번째로 ‘경험적 의식’은 경험적 통각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1) 여기서의 의식은 표상에 수반하는 의식(B132)이다. 즉 우리에게 단순히 표상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단순한 의식작용을 의미한다면 그 표상에 수반하는 의식은 그러한 의식작용에 대한 의식 즉 의식작용의 주체인 나에 대한 자기의식을 포함한다. (2) 칸트는 통각 즉 자기의식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의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예컨대 그는 §17에서 말하기를 “표상들의 모든 결합은 표

의 객관으로서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 초월적 영역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객관적’의 첫 번째 의미규정은 바로 대상관련적이라는 뜻을 갖는다.⁵⁾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해 객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직관도 이 조건⁶⁾ 아래 종속해야 한다”(B138)는 것이다.

그것에 의해 비로소 하나의 대상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에서의 객관적 통일에는 그러나 또 다른 의미규정이 공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통일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다시 말해 보편타당하다는 의미이다. 칸트는 초월적 통일을 객관적 통일이라 부르면서 주관적 통일과 구분한다. 주관적 통일은 내감의 규정이다. 그런데 이 내감에서 “잡다를 경험적으로 의식할 때 동시에 하느냐 잇따라 할 수 있느냐는 상황 내지는 경험적 조건에 달려 있다.”(B139-B140) 다시 말해 주관적 통일은 그 내용이 경험적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되며 따라서 그 타당성도 함께 좌지우지 된다. 이를 두고 칸트는 말하기를 “어느 사람은 어떤 말(Wort)의 표상을 어떤 사상과 결합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상과 결합한다.”(B140)고 한다. 그러므로 주관적 통일은 “필연적으로 ·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B140)며 오직 주관적 타당성만을 갖는다. 반면에 비로소 하나의 객관을 가능하게 하는 통각의 초월적 통일은 보편 타당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리하자면 통각의 초

상들의 종합에서 의식의 통일을 필요로 한다.”(B137)고 한다. 여기에서 ‘의식의 통일’은 의식의 여지없이 통각의 통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험적 의식’ 또한 경험적 통각이라 읽어도 무리가 없다.

5) ‘통일’은 통일작용을 의미할 수도 있고 통일작용의 결과물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객관적 통일’이라는 표현을 첫 번째 의미규정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그 안에 다시 두 가지 이해방법이 있게 된다. 만약 통일작용이 객관적이라는 의미라면 이는 통일작용이 대상 관련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통일작용의 결과물이 객관적이라는 의미라면 이는 이 결과물이 대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앞으로 본고의 관심사가 특정한 유형의 판단작용과 관련되어 있고, 여기서의 ‘판단 작용’이란 결국 특정한 유형의 통일작용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을 이해할 때 첫 번째 방식을 중심으로 두고 경우에 따라 두 번째 방식을 택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정은 ‘객관적’의 두 번째 의미규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6) 즉 통각의 종합적 통일(B138).

월적 동일은 비로소 하나의 대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다는 의미에서도 객관적인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칸트는 말하기를 “판단이란 다름 아니라 주어지는 인식들을 통각의 객관적 동일로 가져가는 방식”(B141)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표상들은 판단의 논리적 기능들에 의해 종합되고 통일됨으로써 통각에 종속하게 된다. 그리고 통각에 종속함으로써 이 동일은 객관적 통일을 이룬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칸트는 두 문장을 예시로 든다. 하나는 ‘물체는 무겁다.(Die Körper *sind* schwer.)’(B142)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한 물체를 들고 있을 때, 나는 무게의 압박을 느낀다.(Wenn ich einen Körper trage, so *fühle* ich einen Druck der Schwere.)’(B142)이다. 전자의 문장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문장은 단지 주관적인 타당성만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후자의 문장과 달리, 전자의 문장이 판단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관계사 ‘이다(ist)’는 이것을⁷⁾ 겨냥하고 있는”(B142) 것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후자의 문장은 두 표상들이 단지 연합의 법칙에 따라서 “한낱 지각 안에 함께하는 것”(B142)임을 보여줄 뿐이라고 한다.

요컨대 판단의 능력은 여러 표상을 하나의 자기의식 즉 통각에서 통일하는 지성의 능력이며 이 때 동일은 객관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이렇듯 판단 작용이 표상들을 초월적 동일로 가져가는 지성의 작용으로 이해된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판단의 논리적 기능에 따르지 않는다면, 표상은 판단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판단의 논리적 기능에 따른다는 것은 곧 초월적 동일 작용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초월적 동일 작용이 작동한다는 것은 그 표상들이 보편타당한 객관적 통일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판단은 보편타당하며, 역으로 보편타당하지 않은 판단은 판단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소간에 반직관적인 결론처럼 보인다. 이어서 살펴볼 『서설』의 지각판단 개념은 이러한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7) 즉 통각의 객관적 동일(B141).

2.2. 『서설』에서의 지각판단 개념

『서설』에서 칸트는 자신 안에 감각적인 것을 함유하고 있는 경험적 판단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러한 경험적 판단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그 둘은 다음과 같다. “객관적 타당성⁸⁾을 가지는 한에서 경험적 판단들은 경험판단들이다. 그러나 단지 주관적으로만 타당한 경험적 판단들을 나는 순전한 지각판단들이라고 부른다.”(IV298) 이러한 판단의 구분이 의아스럽게 여겨진다면 그 이유는 바로 위에서 살펴본 초월적 연역의 논의와 이러한 판단 구분이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표상들을 초월적 통일에 종속시키는 지성의 기능이 바로 판단기능이다. 따라서 보편타당하지 않은 판단은 판단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칸트는 여기에서 지각판단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보편타당하지 않은 판단도 판단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각판단의 개념은 『비판』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롱귀네스B. Longuenesse(1998)가 지적하듯이, 일련의 연구자들은 『서설』에 등장하는 (그리고 『비판』에는 등장하지 않는) 지각판단과 경험판단의 구분이 갖는 타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기도 한다.⁹⁾

지각판단의 개념과 관련한 『비판』과 『서설』의 일관성 문제는 이어지는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일단 『서설』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각판단의 개념에 대한 간단한 소묘를 그리도록 한다. 방금 언급하였듯이 지각판단은 보편타당하지 않고 단지 주관

8) 이때의 ‘객관적 타당성’은 ‘객관적’의 두 번째 의미규정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보편타당성을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다. 칸트는 말하기를 “객관적 타당성과(누구에 대해서나) 필연적인 보편타당성은 교환개념이다.”(IV298)라고 한다.

9) B. Longuenesse(1998), p.169 예컨대 가이어P. Guyer(1987)는, 범주를 보편타당한 판단의 필요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서설』의 서술은 범주를 모든 판단의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비판』의 서술과 충돌을 일으키며, 이러한 충돌은 초월적 연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칸트가 겪는 근본적인 동요를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라고 평가하고 있다. P. Guyer(1987), p.100-102

적으로만 타당한 경험적 판단이다. 예컨대 ‘설탕이 달다.(Der Zucker sei süß.)’¹⁰⁾(IV299)와 같이 말이다. 이 판단에서 우리는 누구나 설탕에 대해서 달게 느끼기를 의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 자신에게 달게 느껴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칸트는 지각판단은 “대상과의 아무런 관계 맺음이 없는, 한낱 나의 마음상태에서의 지각들의 연결이”(IV300)라고 말하고 있다. 지각판단은 “아무런 순수 지성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사고하는 주관에서 지각들의 논리적 연결만을 필요로”(IV298) 할 뿐이다. 이로 볼 때 지각 판단을 성립시키는 판단 기능이 적어도, 순수지성개념 즉 범주 작용으로서, 표상들이 초월적 통일에 종속하게끔 하는 판단의 논리적 기능일 수는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¹¹⁾ 왜냐하면 이러한 판단 기능이 지각 판단을 성립시키는 것이라면, 지각 판단은, 앞선 서술들과는 달리, 객관적인 판단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범주 작용으로서의, 판단의 논리적 기능에 종속하지 않는다면 지각 판단은 어떻게 판단으로서 성립한다는 것일까. 칸트는 『비판』에서와 달리 『서설』에서는 판단작용을 둘로 세분하고 있다. “첫째로는, 내가 순전히 지각들을 비교함으로써 나의 상태의 한 의식에서 하는 판단작용이고, 둘째로는 내가 지각들을 의식 일반에서 결합함으로써의 판단작용이다.”(IV300) 범주의 작용과 구분되는 첫 번째의 판단작용에 의해 지각들을 단순히 비교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한 결과물이 바로 지각판단

10) 정확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Daß das Zimmer warm, der Zucker süß, der Wermut widrig sei,[...]” 우리는 이 판단들에 독일어의 sein동사가 사용되고 있음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칸트는 『비판』의 §19에서 관계사 ‘이다(ist)’가 객관적 통일을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sein동사는 보편타당하지 않은 판단에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표면적인 문장 형식이 어떠한 판단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표시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추후에 상론하도록 한다.

11) “하나의 주어진 직관의 잡다가 판단 기능과 관련해서 규정되는 한에서, 범주들은 이 판단하는 기능들과 다른 것이 아니”(B143)기 때문에, 적어도 경험판단과 관련해서는, 판단의 논리적 기능과 순수 지성 개념으로서 범주 작용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 것이다. 덧붙여 칸트는 이 두 판단을 단계적인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판단들은 처음에는 순전한 지각판단들이다. 그것들은 한낱 우리에게 대해서, 다시 말해 우리 주관에 대해서 타당할 뿐이며, 단지 뒤에 가서 우리는 그것들에게 [...] 하나의 객관과의 관계맺음을 주어, [...] 누구에 대해서나 마찬가지로 타당할 것을 의욕한다.”(IV298)고 한다.

지각판단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할 점은 범주작용과 구분되는 판단작용 즉 무언가를 비교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판단작용에 의해서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는 두 표상이 바로 지각이라는 점이다. 칸트는 “내가 의식하고 있는 직관, 다시 말해 순전히 감각에 소속되는 지각”(IV300)이라고 말함으로써 지각이란 의식되고 있는 직관이라고 규정한다.¹²⁾ 앞서 판단작용을 둘로 구분할 때 한 의식과 의식일반의 구분을 살펴보았었다. 지각이 의식된 직관이라고 할 때의 이 의식은 이 중에서 의식 일반이 아니라 한 의식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칸트는 지각판단이 경험판단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순수 지성개념들이 “직관의 경험적 의식을 의식 일반에서 연결하며, 그렇게 해서 경험적 판단들에 보편타당성을 마련”(IV300)한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각들을 결합하는 것은 한 지각에 대응하는 하나의 경험적 의식들을 의식 일반에서 연결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이는 역으로 직관에 대한 의식이 지각이라고 할 때 이 의식이 의식일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의식을 뜻하는 것임을 알려준다.

지각판단과 경험판단에 대한 이러한 『서설』의 설명은 『비판』에서의 설명과 부정할 수 없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의 의식과 의식일

12) “대상이 표상능력에 미치는 결과”(A19=B34)가 바로 감각이고 직관은 이러한 잡다한 감각 표상이 시·공간적으로 질서 지어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칸트가 지각판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끔씩 “나는 내 감각들에서의 두 감각들을 단지 서로 관계시키고 있는 것이다.”(IV299)와 같이 말할 때, 여기에서의 ‘감각들의 관계’와 ‘지각들의 관계’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각들의 관계’라는 말을, 시·공간적으로 질서 지어진 감각 표상들의 관계라는 식으로, 조금 느슨하게, 이해해도 무방해 보이기 때문이다.

반의 구분은 경험적 통각과 순수 통각의 구분과 대응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두 가지 판단작용에 의해서 구분되는 두 가지 결합방식은 주관적 통일과 객관적 통일의 구분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논리적 기능은 잡다를 초월적 통일에 종속시킨다는 『비판』의 주장과 『서설』의 지각판단 개념 사이에 충돌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문제는 다소 복잡하게 얽힌다. 『비판』에서는 보편타당하지 않은 판단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서설』에서는 지각판단의 개념이 과연 『비판』 내부로 수용될 수 있는냐의 문제가 또한 제기되니 말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지각판단 개념을 중심으로 이 두 저술이 일관적인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각판단은 두 표상을 비교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판단작용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판단작용에 의해 연결되는 두 표상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지각이다. 이 두 가지 요소 즉 범주작용과 구분되는 논리적 연결의 판단작용 개념과 이 판단작용에 의해 연결되는 지각의 개념이 지각판단 개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는 다음의 질문을 차례대로 검토하도록 한다. 첫 번째로, 범주작용과 구분되는 논리적 연결의 판단작용 개념이 『비판』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이러한 판단기능에 의해 서로 연결됨으로써 ‘설탕이 달다(Der Zucker ist süß)’와 같은 지각판단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지각 개념이 『비판』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3. 지각판단 개념에 대한 첫 번째 검토

예고했듯이 이 장에서는 범주작용과 구분되는 판단작용이 『비판』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요구되는 판단작용에 대한 서술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이 판단작용은 주관에서 지각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며 그것도 의식일반에서가 아니라 한 의식에서 그렇게 한다. 칸트는 ‘논리적 연결’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는 대신에 단지 두 지각을 관계시킨다고 말하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 두 지각을 비교하고 결합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결합’이라는 표현은 범주작용에게도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지각판단을 위한 판단작용에 알맞게 사용되는 표현들은 ‘비교’, ‘관계’, ‘논리적 연결’과 같은 느슨한 표현들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비판』에서 이러한 판단작용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유력한 개념은 바로 연합의 법칙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비판』에서 연합의 법칙은 객관적 통일과 대비되는 주관적 통일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관적 통일은 앞서 밝혔듯이 경험적 조건에 좌지우지되는 주관적 타당성만을 갖고 있는 통일이며 또한 통각이 아니라 산만한 경험적 의식에 의한 통일이다. 이 점에서 주관적 통일과 지각판단은 서로 유사하다. 또한 칸트가 주관적 통일의 사례로 제시하는 ‘내가 한 물체를 들고 있을 때, 나는 무게의 압박을 느낀다.’(B142) 또한 지각판단의 한 경우로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러한 주관적 통일을 주재하는 연합의 법칙과 지각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판단작용은 서로 긴밀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칸트는 이러한 주관적 통일과 재생적 상상력을 연결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재생적 상상력의 종합은 단적으로 경험적 법칙들, 곧 연합의 법칙들에 종속하는 것으로 [...] 그것은 초월철학이 아니라 심리학에 속하는 것이”(B152)라고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연합의 법칙이 경험적 법칙들이라는 것을 또한 그것이 심리학에 속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¹³⁾

13) 분명 흄을 겨냥하고 있음이 틀림없는 연합의 법칙은 따라서 이에 대한 흄의 설명에 기대어 보다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흄은 유사성, 근접성, 인과의 세 가지 연합 법칙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예시를 든다. (1) 하나의 그림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고를 원래의 대상으로 이끈다. (2) 건물 안에 있는 하나의 방에 대해 언급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방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생각해 보게 된다. (3) 우리가 만일 상처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상처 때문에 생길 고통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가지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심리적 경향성은 따라서 심리학의 탐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이해력에 관한 탐구』, 데이비드 흄 지음, 김혜숙 옮김, 지만지, p.84 참조

그렇다면 연합의 법칙은 범주작용과 구분되는 제 2의 판단작용인 것일까. 우리는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다음의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가 개개의 판단에서 주어진 인식들의 관계맺음을 [...] 재생적 상상력의 법칙에 따르는 관계와 구별할 때, 나는 판단이란 다름 아니라 주어지는 인식들을 통각의 객관적 통일로 가져가는 방식임을 발견한다.”¹⁴⁾(B141) 이 문장은 판단의 논리적 기능이 객관적 통일을 이루는 지성의 작용이고 따라서 보편타당한 판단만이 판단으로서 가능하다는 해석의 유력한 근거로 지목되는 문장이다. 그러나 이 문장을 해석할 때에는 독일어 접속사 ‘wenn’이 갖는 가정적 성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위 문장은 만약 연합의 법칙에 따르는 관계를 제외한다면 판단은 곧 객관적 통일을 이루는 지성의 작용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위 문장은 범주작용 외의 판단작용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서 위 문장은 연합의 법칙이 범주작용과 구분되는 제 2의 판단작용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범주작용과 구분되는 판단작용으로서의 연합의 법칙이 『비판』 내에 존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칸트가 논리학을 어떤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칸트는 초월적 논리학의 문을 여는 서론에서 논리학을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하고 있다. 우선 논리학을 “지성 규칙들 일반의 학문”(A52=B76)이라고 규정한 후 칸트는 대상 일반에 대한 논리학과 특별한 대상에 대한 논리학을 나눈다. 전자인 일반 논리학은 “지성이 지향하는 대상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그 대상들의 차이는 돌봄이 없이, 지성사용에 관계한다.”(A52=B76) 반면에 “특수한 지성사용의 논

14) 생략되지 않은 독일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nn ich aber die Beziehung gegebener Erkenntnisse in jedem Urteile genauer untersuche, und sie, als dem Verstande angehörige, von dem Verhältnisse nach Gesetzen der reproduktiven Einbildungskraft (welches nur subjektive Gültigkeit hat) unterscheide, so finde ich, daß ein Urteil nichts andres sei, als die Art, gegebene Erkenntnisse zur objektiven Einheit der Apperzeption zu bringen.”(B141)

리학은 특정한 대상들에 관하여 올바르게 사고하는 규칙들을 내용으로 갖는다.”(A52=B76) 여기서 일반 논리학은 다시금 순수 논리학과 응용 논리학으로 구분되는데 그 구분기준은 “그 아래에서 우리 지성이 활용되는 모든 경험적인 조건들을 도외시”(A53=B77)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경험적 조건들을 도외시 하는 것이 순수 논리학이고 도외시 하지 않는 것이 응용 논리학이다.

이 두 논리학의 차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일반 논리학과 초월 논리학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 논리학이 “대상과의 모든 관계맺음을 도외시하고 [...] 사고 일반의 형식만을 고찰”(A55=B79)하는 반면에 초월 논리학은 “대상들에 대한 우리 인식들의 근원”(A55=B80)을 다룬다. 초월 논리학은 “인식들의 근원과 범위와 객관적 타당성을 규정”(A57=B81)한다. 따라서 초월 논리학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 도대체 하나의 대상 표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규정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의 대상 표상은 범주의 통일작용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반면에 일반 논리학은 하나의 대상 표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전혀 묻지 않는다. 일반 논리학은 “인식의 모든 내용을 도외시하고, 어디서인가 외부로부터 표상이 주어지기를 기대하며, 이 표상들을 우선 개념들로 변환”(A76=B102)할 뿐이다.

우리는 일반 논리학과 초월 논리학의 이러한 차이를 분석적 통일과 종합적 통일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소크라테스라는 한 인물의 대상 표상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잡다한 표상들을 종합·통일하여야 한다. 이것이 종합적 통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종합된 소크라테스의 표상 속에는 사람 개념과 관련된 표상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종합적 표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일부 표상을 끄집어내어 사람 개념과 연결함으로써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분석적 통일이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칸트는 “동일한 지성이 [...] 판단의 논리적 형식을 성립시켰던 분석적 통일을 매개로 한 그 작용을 통해, 직관 일반에서의 잡다의 종합적 통일을 매개로 그의 표상들에게 초월적 내용을

부여한다.”(A79=B105)고 하는 것이다. 다음의 방식으로 이해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 칸트는 “판단은 한 대상에 대한 간접적인 인식, 그러니까 대상의 표상에 대한 표상이”(A68=B93)라고 한다. 여기에서 대상의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지성의 작용과 그 대상 표상에 대한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지성의 작용을 구분해볼 수 있고 이것이 각각 종합적 통일과 분석적 통일인 것이다. 즉 초월적 논리학이 하나의 대상을 종합적으로 가능하게 해주고 일반 논리학은 이 대상과 개념을 분석적으로 연결한다.¹⁵⁾

그런데 하나의 대상표상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 특정한 개념을 연결하는 일반 논리학은 앞서 밝혔듯이 다시금 순수 논리학과 응용 논리학으로 나뉜다. 본고는, 범주작용과 구분되는 판단작용으로서의 연합의 법칙이, 이 중에 바로 응용 논리학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칸트는 말하기를 응용 논리학은, “심리학적인 원리들을 필요로”(A55=B79) 하며, “심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A53=B77) “감관의 영향, 상상의 유희, 기억의 법칙들, 습관·경향성 등의 힘”(A53=B77)과 같은 “주관적인 경험적 조건들 아래에서의 지성사용의 규칙들”(A53=B77)을 다룬다. 또한 응용 논리학은 “주의 및 주의의 장애와 결과, 착오의 근원, 의심·의혹·확신의 상태 등을 다룬다.”(A54=B79) 그러므로 응용 논리학은 “지성 일반의 규준도 아니고, 특수 학문들의 기관도 아니고, 단지 보통 지성의 일종의 정화제”(A53=B78)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경험적인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주관적 통일성 그리고 그러한 통일을 주재하는 연합의 법칙과 잘 부합하는 설명이며, 또한 이들이 심리학과 맺고 있는 깊은 관련성과도 잘 부합하는 설명이다.

“주관적인 경험적 조건들 아래에서의 지성사용의 규칙들”(A53=B78)인

15) 그러므로 ‘통일’ 또는 ‘결합’이라는 표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하나는 종합적인 경우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분석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서설』에서 칸트가 지각판단과 경험판단 각각에 대해서 “지각들을 비교하고 한 의식에서 판단작용에 의해 결합하는 것”(IV300) 혹은 “지각들을 의식 일반에서 결합함으로써의 판단작용”(IV300)과 같이 ‘결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판단작용에 대해서 칸트는 “본래 전자¹⁶)만이 학문이다”(A54=B78)라고 하여 사실상 논의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버린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연합의 법칙에 의해서 대상의 표상과 연결되는 표상이 객관에 타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관에만 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썩은 역하다.(Wermut sei widrig.)’(IV299)와 같은 지각판단에서 썩이라는 대상 표상과 연결되고 있는 표상은 역함의 표상이다. 만약 썩 자체가 역함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 썩을 먹는 어느 누구나 역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역함의 표상은 썩이라는 대상에 귀속시킬 수 있는 표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역함의 표상이 썩이라는 대상에 귀속되는 표상인 것처럼 판단을 한다. 연합의 법칙에 의해서 말이다. 따라서 이는 단지 주관적 타당성을 가질 뿐이며, 객관적 학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엄밀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¹⁷⁾

-
- 16) 즉 일반 논리학 중에서 순수 논리학(A53=B78). 다시 말해서 칸트는 일반 논리학을 순수 논리학과 응용 논리학으로 구분하면서, 오직 순수 논리학만이 학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 17) 이처럼 응용 논리학이 객관적 학문에 기대되는 엄밀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응용 논리학이 도대체 논리학이기는 한 까닭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본고는, 적어도 아직은, 이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두 번째로 본고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본고에게 고유한 어려움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칸트는 논리학이란 “지성 규칙들 일반의 학문”(A52=B76)이며 그 중에서 일반 논리학은 “단적으로 필수적인 사고의 규칙들”(A52=B76)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일반 논리학의 한 부분으로서, 응용 논리학도 단적으로 필수적인 사고의 규칙들이다. 이것이 응용 논리학과 관련한 칸트의 한 가지 서술 흐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칸트는, 응용 논리학이 “주관적인 경험적 조건들 아래에서의 지성사용의 규칙들”(A53=B77)이며 또한 “심리학적인 원리들을 필요로”(A55=B79) 한다고 한다. 이것이 응용 논리학과 관련한 칸트의 다른 또 한 가지 서술 흐름이다. 이 두 서술 흐름이 모두 칸트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이 두 서술 흐름의 공준으로부터 이미 문제의 물음이 제기 되기에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조건들 아래에서의 지성사용 그리고 심리학적인 원리들과 관계되는 지성사용이 어째서, 단적으로 필수적인 사고의 규칙들로서, 논리학이라 불릴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의 물음은, 주관적 통일과 연합의 법칙을 응용 논리학에 포함

그러므로 대상 표상에 어떠한 개념을 연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순수 논리학과 응용 논리학은 서로 다른 판단작용을 일으킨다. 순수 논리학의 경우에는 범주 작용을 통해 판단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물체는 무겁다.(Der Körper ist schwer.)’(B142)와 같이 관계사 ‘이다(ist)’를 통해 주어와 술어를 연결한다. 반면에 응용 논리학의 경우에는 연합 법칙의 작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된다. ‘내가 한 물체를 들고 있을 때, 나는 무게의 압박을 느끼게 된다.([...] , so fühle ich einen Druck der Schwere.)’(B142) 여기에서 우리는 관계사 ‘이다(ist)’ 대신에 ‘느끼다(fühlen)’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대상 표상과 개념을 연결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이다.¹⁸⁾

정리하자면 『서설』에서 지각판단을 위한 판단작용 다시 말해 범주적 작용과 구분되는 논리적 연결의 판단작용은 『비판』에서 연합의 법칙, 응용 논리학의 개념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 때 연합의 법칙은 응용 논리학으로서 분석적 통일 작용을 수행한다.¹⁹⁾ 그러나 관계사 ‘이다(ist)’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적 통일을 수행하는 순수 논리학과는 달리 연합의 법칙은 관계사 ‘이다(ist)’의 도움 없이 논리적 연결

시키는 본고의 해석적 주장 때문에 발생하는 물음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 18) 이러한 맥락에서 『서설』의 예문 ‘설탕이 달다.(Der Zucker ist süß.)’(IV299 참조)와 같은 경우는 롱귀네스의 지적처럼 일종의 번역이 필요하다. “sugar tastes sweet”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Longuenesse(1998), p.173
- 19) 그러므로 본고는 지각판단을 분석적 통일에 귀속시키는 클레메H. F. Klemme(1996)의 논지에 동의하고 이를 비판하는 김화성(2005)의 논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클레메의 논지를 따를 경우 지각판단이, 종합적 통일의 결과물로서의 객관적 표상을 전제한다는 기이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김화성의 비판에 대한 재비판은 이어지는 5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각판단을 순수 논리학으로 분류하는 클레메의 논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클레메는 지각판단이 분석적 통일성을 지닌다는 점으로부터 지각판단이 모순물에 의거한 표상의 결합이라고 즉 분석판단이라고 추론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사과는 빨갱다’가 분석적 통일을 보여주긴 하지만 분석판단은 아닌 것처럼 이러한 추론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H. F. Klemme(1996), p.201; 김화성(2005), p.86-90

작용을 수행한다. 이러한 연결은 대상의 표상과 주관적인 표상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 결과물로서 판단은 오직 주관적 타당성만을 가질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연합 법칙의 작용을 통각의 초월적·객관적 통일과 구분하며 경험적 의식 즉 경험적 통각의 주관적 통일 작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지각판단 개념에 대한 두 번째 검토

이제는 연합의 법칙에 의해 서로 연결됨으로써 ‘설탕이 달다.(Der Zucker ist süß.)’와 같은 지각판단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지각 개념이 『비판』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할 차례이다. 먼저 『서설』에 지각 개념과 관련한 어떠한 서술들이 있는지를 간략히 정리해보자. 칸트는 “내가 의식하고 있는 직관, 다시 말해 순전히 감각에 소속되는 지각”(IV300)이라고 말하여 지각이란 감성에 속한 직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지각판단에 대해서는 “두 감각들을 단지 서로 관계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두 지각을, 범주작용이 아닌 어떠한 판단작용을 통해 서로 연결하고 관계시킨 결과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판』에서는 지각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는가. 『비판』의 §26에서 칸트는 지각이란 “곧 (현상으로서의) 직관에 대한 경험적 의식”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경험적 의식이 의식 일반이 아니라 한 의식임을 염두에 두면 지각에 대해서 사실상 『서설』에서와 동일한 규정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러한 규정 즉 의식된 직관 혹은 직관에 대한 의식이라는 규정을 보다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직관은 감성에 의해 주어지는 표상으로서 자신 안에 잡다를 함유하고 있는 표상이다. 그런데 직관도 하나의 표상인 이상 그 안의 잡다한 표상이 하나의 공통적인 표상 아래에서 정돈되는 통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바로 포착의 종합이다. 칸트는 포착의 종합을 “경험적 직관에서의 잡다의 합성”(B160)이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사정을 A판 초월적 영역의 설명

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직관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그 잡다를 일별하고, 다음에 그것을 통괄함이 필요하다. 이 작용을 나는 포착의 종합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바로 직관을 지향하고 있으니 말이다. 직관이란 잡다를 내놓는 것이긴 하지만, 이 잡다는 잡다로서 한 표상 안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직관은 그 한 표상에서 나타나는 종합이 없이는 결코 어떤 잡다도 생기게 할 수 없는 것이다.”(A99)

그런데 주지하듯이 서로 다른 표상들을 하나의 공통적인 표상 아래서 정돈하는 종합·통일 작용은 통각 다시 말해서 자기의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 칸트의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이다. 앞서 밝혔듯이 여기에서의 자기의식은 둘로 나누어볼 수 있다. 불변하는 동일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의식 즉 순수 통각 혹은 의식 일반, 그리고 모든 표상들에 수반하는 산만한 자신에 대한 의식 즉 경험적 통각 혹은 한 의식으로 말이다. 지각이란 직관에 대한 경험적 의식이라고 규정할 때 칸트가 염두에 둔 바는 바로 경험적 의식에 근거한 포착의 종합인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의식된 직관 또는 직관에 대한 의식이란 다름 아니라 포착된 직관 또는 직관에 대한 포착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칸트는 “직관의 잡다를 포착함으로써 지각화”(B162)한다고 하며 또한 “포착의 종합, 즉 지각”(B162)이라고 하는 것이다.²⁰⁾

20) 엘리슨H. Allison(2004)은 포착과 연합, 이 둘 모두를 주관적 통일의 사례라고 분석한다. 연합이 주관적 통일이라는 점에는 본고 또한 동의한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칸트가 주관적 통일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상들의 연합에 의한 의식의 경험적 통일은 그 자신 현상에 관계하고, 전적으로 우연적이다.”(B140) 그러나 포착 또한 주관적 통일의 사례로 이해되어야 하는 까닭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전술하였듯이 연합과 주관적 통일을 관련짓는 직접적인 서술은 발견할 수 있는 반면에, 포착을 주관적 통일과 관련짓는 직접적인 서술은 발견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칸트는, 연합의 법칙에 종속하며 또한 심리학에 속하는 종합을 재생적 상상력의 종합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포착의 종합이 의존하는 생산적 상상력의 형성적 종합과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다.(B152) 그렇다면, 결정적인 문헌 근거가 없는 이상 주관적 통일과 포착은 별개의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H.

지각의 개념이 이렇게 이해가 되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다. 지각은 경험적 의식에 의한 통일 작용이므로 하나의 대상 표상을 산출하지 못한다. 초월적 통일을 통해 한 대상의 표상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수 통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트가 지각판단의 예로 드는 문장들을 살펴보면 이 문장들에는 하나의 경험적인 대상이 이미 전제가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설탕이 달다.(Der Zucker ist süß.)’(IV299 참조)와 같은 문장에서도 단 맛의 주관적 표상이 연결되고 있는 설탕이라는 경험적 대상이 이미 전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칸트는 지각판단을 두고 말하기를 “그것은 대상과의 아무런 관계 맺음이 없는, 한낱 나의 마음상태에서의 지각들의 연결이”(IV300)라고 하기는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대상과의 관계맺음이 없다는’ 표현을 지각판단은 한 대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는다면 곤란할 것이다. 칸트 또한 『비판』에서 “판단은 한 대상에 대한 간접적인 인식, 그러니까 대상의 표상에 대한 표상이”(A78=B93)라고 함으로써 판단에는 대상의 표상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시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지각판단은 대상과의 관계맺음을 갖지 않는다는 칸트의 서술은 지각판단이 어떠한 대상관련성도 지니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객관적인 타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합의 법칙은 초월 논리학이 아닌 응용 논리학에 속한다. 그러므로 연합의 법칙만으로는 하나의 대상 표상이 생겨날 수 없다. 연합의 법칙을 포함한 일반 논리학은 “어디서인가 외부로부터 표상들이 주어지기를 기대하며, 이 표상들을 우선 개념들로 변환”(A76=B102)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 도대체 하나의 대상 표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규정하는 것은 초월 논리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서설』의 지각 개념과 『비판』의 지각개념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각개념은 순수 통각이 아닌 경험적 의식의 산물이다. 하나의 대상 표상은 순수 통각의 초

월적·객관적 통일만을 통해 가능하므로 경험적 의식의 산물인 지각은 하나의 대상 표상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지각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연합의 법칙도 대상 표상을 성립시키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각판단은 그러한 대상 표상을 미리 전제하는 판단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연합의 법칙에 의해 서로 연결됨으로써 ‘설탕이 달다.(Der Zucker ist süß.)’와 같은 지각판단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지각 개념은 『비판』에서 발견될 수 없다.

5. 초월적 연역에서 주관적인 판단의 가능성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서 『비판』은 정말로 보편타당하지 않은 판단 즉 주관적 판단²¹⁾은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서설』의 지각판단 개념이 내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해 필요가 있겠다. 칸트는 지각판단의 예시로 ‘설탕이 달다(der Zucker sei süß)’(IV299)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탕이라는 표상과 단 맛의 주관적 표상이 연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설탕이라는 표상은 이미 초월적 통각에 의한 초월적·객관적 종합·통일의 산물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단 맛의 주관적 표상이 관련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내 앞에 설탕이 놓여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비판』의 예문 ‘내가 한 물체를 들고 있을 때, 나는 무게의 압박을 느낀다.’(B142)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연합의 법칙이 ‘느끼

21) 이 지점에서 밝혀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이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주관적 판단이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각판단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경험적인 판단 즉 “그 근거를 감각들의 직접적인 지각 안에 가지고 있”(IV297)으면서 보편타당하지 않은 판단만이 고려대상이다. 그러므로 ‘일각수(一角獸)는 아름답다’와 같은 판단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여기서의 일각수는 그에 대응하는 감각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상상의 동물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fühlen)'라는 방식으로 무거움의 표상을 그것에 연결시키고 있는, 물체라는 대상 표상에는 이미 연장성, 불가투입성, 형태(B12) 등의 징표들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종합·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물체가 나에게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판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지금 여기에 물체가 있다.'²²⁾라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험적 인식이 반드시 우선해야한다.²³⁾

그러므로 주관적 판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대상에 대한 경험판단이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연합의 법칙은 경험판단을 통해 마련된 대상 표상에 주관적인 표상을 비범주적인 방식으로 연결하는 통일 작용을 주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설탕이 달다(der Zucker sei süß)'와 같은 문장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이러한 판단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 설탕이 있어서 그것이 내게 달게 느껴진다.'²⁴⁾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주관적 판단의 개념이 『비판』에 해석적으로 수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본고는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22)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은 물체다.'라고 표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특정 시·공간을 점유하면서 나타나는 대상에 대한 객관적 종합·통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23) 그러므로 김화성(2005)의 비판과는 달리 실제로 지각판단은 종합적 통일의 결과물로서의 객관적 표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험판단을 전제해야만 한다. 하나의 대상은 경험판단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 지각판단이 하나의 대상에 대한 판단인 이상 지각판단은 경험판단을 반드시 전제해야만 한다. 그런데 만약 지각판단이 하나의 대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판단조차 아닌 것처럼 보인다.

24) 즉 'Sugar is sweet.'를 'Sugar tastes sweet.'로 번역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롱귀네스(1998)의 제안에 더하여 본고는 새롭게 다음의 번역문을 제안한다. 'There is a sugar which tastes sweet.' 이 문장은 특정 시·공간을 점유하면서 나타나는 설탕이라는 대상에 대한 객관적·종합적 통일이 먼저 있는 다음에 이 대상 표상에 대해서 또 다른 표상이 주관적·분석적 통일을 통해 덧붙여지는 과정을 충실하게 보여준다. 더 나아가 객관적 통일에는 영어의 관계사 'is'를 사용하고 주관적 통일에는 영어 동사 'tastes'를 사용함으로써 범주적 통일 작용과 비 범주적 통일 작용을 구분해서 보여준다.

첫째로 칸트는 『서설』에서 사용한 “지각들의 논리적 연결”(IV298)이라는 표현 대신에 『비판』에서는 “표상들의 연합”(B140)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판단작용이 연합의 법칙임을 앞서 밝혔다. 그런데 『서설』에서 칸트는 이 연합의 법칙이 두 지각들을 연결한다고 말함으로써 기실 지각판단 개념을 문제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연합의 법칙을 통해 단지 지각들만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서는, 그 연결의 산물에 어떠한 대상 표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판』에서 칸트는 연합의 법칙이 연결하는 두 표상에 대해서 별다른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표상이라고만 하고 있다. 그리고 연합 법칙과 지각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 다시 말해서 『비판』에서의 주관적 통일이란 본고의 주장처럼, 객관적 통일에 의해 먼저 마련된 객관적·종합적 표상에 추가적으로 주관적 표상을 덧붙여 연결하는 통일로 이해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칸트는 『서설』에서 지각판단은 “아무런 순수 지성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IV298)하다고 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판단들은 처음에는 순전한 지각판단들이”(IV298)라고 하는 반면에 『비판』에는 이러한 서술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서술들이 해석에 곤란함을 주었던 까닭은 이 서술들이 지각판단을 순수지성개념을 통한 객관적·초월적 통일과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지각판단은 판단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상 표상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하나의 대상 표상은 범주작용에 의한 객관적·초월적 통일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지각판단이 범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서술은 지각판단의 개념을 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개념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비판』에서 주관적 통일 혹은 연합의 법칙과 관련해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범주의 작용을 통한 객관적 통일과 연합 법칙에 의한 주관적 통일은 구분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범주 작용의 산물이 연합 법칙과 관련을 맺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차단해버리는 그러한 부정적 서술은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서설』에 등장했던 지각판단과 경험판단의 단계적인 구조 즉 모든 판단들이 처음에는 지각판단이었다가 추후에 범주작용을 통해 경험판단이 된다는 서술도 『비

판』에서는 주관적 통일이 아니라 지각 개념에 특정된다. 칸트는 말하기를 “경험이란 연결된 지각들에 의한 인식”(B161)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지각과 경험은 단계적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각과 경험의 단계적인 성격은 주관적 통일과 객관적 통일의 구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모든 통일들이 처음에는 주관적 통일이었으나 이들이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거쳐서 객관적 통일이 된다는 식의 서술은 찾아볼 수 없다.

셋째로 본고의 해석적 주장은 『비판』의 “초월적 통일에서부터 具體的으로 주어지는 조건 아래서 도출될 따름인 통각의 경험적 통일은 오직 경험적 타당성만을 갖는다.”(B140)는 서술과 잘 부합한다. 이 서술에 따르면 경험적 통일 혹은 주관적 통일은 초월적 통일에서부터 도출된다.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조건 아래서 말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초월적 통일’이란 하나의 대상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범주작용을 의미한다고, ‘具體的으로 주어지는 조건’이란 응용 논리학을 설명할 때 칸트가 언급하는 “具體的인, 곧 지성사용을 방해할 수도 촉진할 수도 있는, 그렇지만 모두가 오직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주관의 우연적인 조건들”(A54=B79)을 의미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적 통일’이란 연합 법칙의 작용에 의해 연결된 주관적 판단작용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설탕이 달다.(der Zucker ist süß.)’와 같은 판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여기에 설탕이 있다.’라는 객관적인 경험 인식이 우선해야만 한다. 이렇듯 범주 작용을 통해 하나의 대상 표상이 성립하고 나서야 비로소 연합 법칙에 의해 이 표상에 주관적인 표상을 연결할 수 있다. 『서설』의 지각판단 개념은 단지 두 지각을 연결할 뿐 범주 작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판단으로 규정됨으로써 내적인 문제점을 안게 된다. 반면에 『비판』에서 주관적 통일성의 개념은 연합의 법칙에 의해 두 표상을 연결한다. 하나는 범주작용을 통해 생겨난 객관적·종합적인 대상 표상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 표상이다. 이 둘을 연결함으로써 비로소 한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 나가며

그러므로 본고의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서설』의 지각판단 개념은 『비판』 내로 수용될 수 없다. 두 번째로 『비판』 내에서 주관적 판단은 연합의 법칙 즉 경험적 통각의 주관적인 통일작용 의해서 가능하다. 주관적 판단은 그것이 비록 보편타당하지 않은 판단일 지라도 반드시 하나의 대상 표상을 전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판단은 항상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의 대상 표상이란 통각의 객관적 통일작용을 통해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다. 반면에 경험적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이렇게 객관적 통일작용을 통해 주어지는 대상 표상에 연합의 법칙을 통해서 주관적 표상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지성의 작용이다. 이러한 일련의 통일작용 즉 객관적 통일작용과 주관적 통일작용을 통해서 비로소 ‘설탕이 달다(Der Zucker sei süß)’와 같은 주관적 판단이 가능해진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판단의 표면적인 문장형식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장을 ‘지금 여기에 설탕이 있어서 내게 달게 느껴진다.’와 같은 방식으로 번역해서 이해함으로써 이 판단의 주관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러한 객관적 통일과 주관적 통일의 대비를 통해 칸트가 생각하는 학적 인식의 일면을 엿볼 수도 있다. 우리는 앞서 순수 논리학과 응용 논리학 중에서 “본래 전자만이 학문”(A54=B78)이라는 칸트의 서술을 살펴본 바 있다. 즉 그 통일이 객관적일 때에만 학문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이러한 객관적 통일은 관계사 ‘이다(ist)’를 통해 판단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된 객관적 판단은 객관과 합치하는 판단이다. 어떠한 성질을, 단지 주관에게 그러한 것으로 여겨질 뿐인 것이 아니라, 객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객관이 그러한 것으로 규정하는 판단이 바로 객관적 판단이다. 그러므로 학적 인식이란 객관의 사실에 대한 판단이다. 반면에 주

관적 통일에 의한 주관적 판단은 객관에 귀속하는 성질이 아니라 단지 그 객관과 연결되는 주관의 상태에 관한 판단이다. 때문에 주관적 판단은 관계사 ‘이다(ist)’가 아니라 ‘느껴지다(fühlen)’, ‘여겨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이 객관 세계의 사실에 대한 판단만이 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세계에 반응하여 주관이 느끼는 바에 대한 판단은 단지 우연하고 주관 자신에게만 타당할 뿐인 것이다.

참고문헌

〈1차 문헌〉

- Kant, Immanuel., *Kritik der reinen Vernunft*, hrsg. v. J. Timmermann, Hamburg 1998.
- _____, *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die als Wissenschaft wird auftreten können*, hrsg. v. K. Vorländer, Hamburg 1951.
- _____, 『순수이성비판 1·2』,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6.
- _____, 『형이상학 서설』,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12.
- _____, 『판단력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9.
- Hume, David., 『인간의 이해력에 관한 탐구』, 김혜숙 옮김, 지만지, 2010.

〈2차 문헌〉

- 김화성, 「통각의 초월적 통일과 주관적 표상의 관계」, 『칸트연구』 제15집, 한국칸트학회, 2005.
- 배정호, 「범주의 초월적 연역(B)은 어떤 논증인가?」, 『칸트연구』 제25집, 한국칸트학회, 2010.
- _____, 「사고 일반의 최종근거로서 통각의 종합적 통일」, 『칸트연구』 제27집, 한국칸트학회, 2011.
- 백종현, 『존재와 진리』, 철학과현실사, 2008.
- Allison, H., *Kant's Transcendental Idealism. An Interpretation and Def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second edition, 2004.
- Guyer, P., *Kant and the Claims of Knowledg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Höffe, O., 『임마누엘 칸트』, 이상현 옮김, 문예출판사, 1997.
- Klemme, H. F., *Kants Philosophie des Subjekts*, Hamburg: Meiner, 1996.

Longuenesse, B., *Kant and the Capacity to Judge*, trans. by Charles Wol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ereboom, D., “Kant's Transcendental Arguments”,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Winter 2009 Edition), Edward N. Zalta (ed.),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win2009/entries/kant-transcendental/>>.

